산업보건협회 노사, 녹색병원 방문

# 산재노동자에게 '사랑의 나눔상자' 전달

대한산업보건협회 노사가 녹색병원을 찾아
'사랑의 나눔상자'를 전달했다.
노사는 나눔상자와 함께 불의의 사고를 당해
고통받고 있는 산재노동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 산재노동자의 아픔을 위로하며,

대한산업보건협회 노사가 4월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나눔상자 100개를 전달했다.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나눔상자는 녹색병원을 통해 입원·내원 산재노동자 100명에게 전해졌다. 나눔상자에는 생필품과 구급키트 등 산재노동자들이 일상에서 쓸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담겼다.

전달식에는 협회 백헌기 회장 및 정정희 노조위원장 등이, 녹색병원 김봉구 명예원장 및 조윤찬 보건의료노조 녹색병원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2003년 개원한 녹색병원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재노동자 병원이다.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은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 화재로 희생된 188명의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1996년 4월 28일 전 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이 촛불을 든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캐나다·스페인·미국을 포함한 19개 국가에서 4월 28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해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